

## 해남·조웅 장학재단의 활동



(재)해남장학재단(이사장 조성제)의 2009년 하반기 장학금 수여식이 8월 14일 오전 11시 조일제 이사장 권한대

행과 학생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함안문화원(원장 趙煥來)에서 열렸다. 이날 대학생 34명에게 1인당 150만 원씩 총 5,100백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하는 한편 명덕고등학교에 300만 원, 함안문화원 문화학교 500만 원 등 800만 원을 교육 관련 사업비로 전달했다.

1996년 설립된 해남장학재단은 조성제(일본 동경, 동성상사(주) 대표이사)이사장이 고향 함안의 발전을 위해 10억원의 현금과 부동산 20억원을 출연해 설립됐으며 2003년 3억 3천만원을 추가 출연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동안 대학생 장학금 1,228명, 13억 9,885만 원, 고교생 장학금 125명, 9,220만 원, 초·중생 학비보조 1,606명, 3억 800만 원, 교육관련사업 지원 34건 7,569만 원, 향토사연구비 지원 12건 4,580만 원 등 총 19억 9,254만 원의 사업실적을 거뒀다.

한편, (재)조웅장학재단의 기금 출연자인 (주)선양의 조웅래 사장은 가난한 농부의 7남매 중 막내로 경남 함안군 가야읍에서 태어나 경북대학 전자 공학과를 졸업하고 삼성전자, LG전자에 근무하다 2,000만원으로 전화 정보사업으로 창업하여 초창기에 적은 창업 자금으로 여러 차례 시련을 겪기도 했으나, 항상 고향 사랑과 후배양성에 적은 힘이나마 보탬이 되어 모두가 함께 발전하는 아름다움 꿈을 한 순간도 버린 적이 없었다고 한다. 시련과 위기에 좌절하지 않고 불굴의 의지와 불광불급(不狂不及)의 정신으로 작은 성공을 거두게 되자 모든 재산의 일부로 장학재단 설립을 했다.

1999년 8월 20일 발기인총회를 하고 같은 해 9월 30일 설립허가를 받은 후 같은 해 10월 11일 10억원을 출연하여 '재단법인 조웅장학재단'을 설립하여 10주년이 되는 2009년 2월까지 517명의 고향 후학들에게 3억 7천 1십만 원을 장학금으로 수여한 바 있다.

조부제 베트남참전 유공자전우회  
함안군지회장 취임

조부제(趙富濟, 節度公派) 종원이 8월 1일 베트남 참전 유공자전우회 함안군지회장으로 취임했다. 20여 년 전 '월남참전전우회'가 있었으나, 활동이 유야무아하다 종간에 완전히 중단되고 만 것을 이번에 절차를 거쳐 조부제 종원이 회장으로 선출되어 취임식을 가졌다. 조부제 종원은 월남전 때 해병정 룽부대원으로 참전했었고, 이날 행사장에 조영규 함안군수·조성래 대종회 회장·조훈래 함안문화원장 등 많은 일가들의 얼굴이 보였다.

52호 오자를 정정(訂正)합니다.

4면 2009총회협찬금 청원회수회(회장 조철규)  
20만원→10만원으로

인정동정 조종래(趙鍾來, 同知公派)→東溪公派

## 종회보 협찬금 감사합니다

(단위 : 천원)

## ■서울시·인천시·경기도·강원도

조선제 서대문구 연희동 동신A	50	조철래 함안군북면 소포리	30
조성래 중구 광희동2가	30	조용길 김해 외동	100

## ■충남

조제선 풍기군 풍기읍 금계리	30	조석래 함안 가야읍 도향리	100
-----------------	----	----------------	-----

## ■대구시·경북

조인제 경북 포항시 용흥1동	20	조철래 변호사	30
조래위 경북 경산시 암량면 부적리	50	조인남 거창 응암면 동호회	30
조병우 대구 달성구 도원동 롯데A	30	조은래 진주 호진동	30
조현권 경북 성주군 성주읍 금산리	20	조용홍 함안 산인면 대천리	30
경산화수회 회장 조신제·총무 조광래	200	조현두 사천 공명면 용신리	30
조영래, 조학래, 조정래(삼형제) 대구 서구 내당동	100	조숙희 마산 내서읍 코오롱A	100

## ■부산·경남

조덕제 마산 장군동	30	조삼제 함안 여령면 주서리	20
조학규 부산 동구 초량1동	100	조명규 의령 부림면	10
조범래 부산 남구 대연동	200	조봉제 함안 군북면 사촌	30
조소래 함안군	30	조희제 간송당파(閑松堂公派) 종손	100

## 채미정 복달음 협찬자 명단

2009年 8月 13日 未伏

趙義公派 宗中종회장 趙煥來	100,000	趙顯大 부산 해운대구·大笑軒公派	100,000
趙虎濟 미산 신포동·通改公派	100,000	趙曉奎 함안 가야읍·大笑軒公派	100,000
趙文奎 함안 산인면·韜巖公派	100,000	趙顯燮 함안 군북면·大笑軒公派	50,000
趙貞來 함안 법수면·參判公派	100,000	趙勳齊 함안 군북면·大笑軒公派	50,000
趙正原 힐천 울곡면·散眞公派	100,000	趙命來 함안 군북면·大笑軒公派	50,000
趙長濟 부산 수영구·執義公派	100,000	趙素來 함안 가야읍·본향 회수회장	50,000
趙仁來 부산 해운대구·四味堂公派	100,000	趙鏞珍 함안 가야읍·鏡正公派	50,000
趙梧齊 부산 동래구·부산화수회장	100,000	趙鐘連 부산 해운대구·大笑軒公派	50,000
趙學奎 부산 동구·韜巖公派	100,000	趙井奎 함안 법수면·都事公派	50,000
趙性道 함안 대신면·斗巖公派	100,000		

## 임원·이사회비(협찬금) 감사합니다

(단위 : 천원)

趙鍾來 함안 산인면 대천(자문위원)	100	趙昌來 경북 청송군 망운공파(望雲亭公派) 종종	300
남화수회 회장 趙承洙(화전만광농원 대표)	100	趙碩來 함안 가야읍 도향리	100
趙聖來 마산 내서읍 호계리(대종회 회장)	3,000	趙泰奎 서울 중구 신당 4동(고문)	200
趙明來 진주 주의동 한주력(타운(고문))	100	趙璟文 함안 가야읍 도향리(부회장)	100
趙範來 부산 남구 대연동(이사)	200		

## 受贈圖書目錄 기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8年 4月 17日 以後

接受日字	圖書名	卷(冊)數	寄贈者住所
08.05.15	咸趙實錄(上·下)	各1	부산 해운대 趙相來
08.06.05	咸安趙氏 農逋公派 世譜 電算化集(1~3)	各1	합천 봉산면 趙鍾朱
08.06.24	咸安趙氏 獨立有功者 功勳錄	2	부산화수회
08.08.22	내딸을 판사로 만들기 작전	1	함안 군북면 조재점
08.10.07	南隱公遺稿	2	함양 서상면 趙東濟
08.10.07	閑中謄謄	2	함양 서상면 趙東濟
08.11.02	국역 芝嶽先生實記(全)	1	대구 수성구 趙特來
08.11.08	王峰先生逸稿集	1	부산 敎大 李慎成
08.12.05	어문학고류·제37집	1	경기 남양주 趙繩俊
08.12.18	조용수와 民族日報	1	김해 장유면 趙旭來
08.12.26	道谷實錄·(譯)單	各1	경기 문당시 趙秀漢
09.02.20	月岡遺稿·單	1	경안 산인면 趙宗來
09.03.02	韜巖先生 實記	1	함안 산인면 趙宗來
09.03.02	心齋先生文集(乾·坤)	各1	함안 산인면 趙宗來
09.03.02	晦西集·單(原本·譯本)	各1	함안 산인면 趙顯化
09.03.24	泉下草梓集(素履實記·德岡遺稿)	1	마산 내서읍 趙聖來
09.03.24	국역 國朝喪禮補編	1	함안 가야읍 趙煥來
09.04.28	함안향일독립운동사	1	함안 가야읍 趙煥來
09.04.28	경남지역 3.1독립운동사	2	함안 가야읍 趙煥來
09.04.28	慶尚道 咸安郡 叢瑣錄(上·下)	各1	함안 가야읍 趙煥來
09.04.28	慶尚道 咸安郡 叢瑣錄(上·下)	各1	함안 가야읍 趙煥來
09.05.07	국역 咸州誌	2	진주 강남동 趙準來
09.05.07	咸安趙氏 德谷公派世譜(1~3)	各1	부산 해운대 趙相來
09.05.31	月臯集(上·下)	各1	부산 해운대 趙相來
09.05.31	潤松先生文集(上·下)	各1	부산 해운대 趙相來
09.05.31	升窓遺稿	1	부산 해운대 趙相來
09.05.31	芹庵遺稿	1	부산 해운대 趙相來
09.05.31	松溪遺稿	1	부산 해운대 趙相來
09.05.31	可軒實記	1	부산 해운대 趙相來
09.06.25	槐圃遺稿(乾·坤)	各1	함안 함안면 趙平來
09.07.13	慶南 鄉土文化	1	함안 함안면 趙平來
09.07.13	晚醒 朴致復의 學問과 思想	1	함안 함안면 趙平來
09.07.13	생활문화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1	함안 함안면 趙平來
09.07.18	풀어쓴 동양고전·브리핑 영어·한자(1~7)	각1	마산 창포동 吳基漢
09.07.25	退庵 金先生 閻僕之義	1	마산 양덕동 趙賢濟
09.07.25	韓國의 思想大全集(1~9)(13~24)	各1	마산 양덕동 趙賢濟
09.07.25	原色 世界百科 大事典(1~20)	各1	마산 양덕동 趙賢濟
09.07.25	世界文章大百科事典(1~5)	各1	마산 양덕동 趙賢濟
09.07.25	국역 粟谷集(1·II)	各1	마산 양덕동 趙賢濟
09.07.25	국역 退溪集(1·II)	各1	마산 양덕동 趙賢濟
09.07.25	국역 西厓集(1·II)	各1	마산 양덕동 趙賢濟
09.08.01	국역 孤山·雲臘先生文集	1	함안 칠서면 李道

# 孝悌忠義

父母에게 孝道하고 兄弟間에 友愛있으며  
忠誠을 다하여 節介와 義理를 지킴을 말함.

제53호

2009년 9월 15일 화요일

발행처 咸安趙氏大宗會 | 발행인 趙聖來 | 편집인 趙鏞得 | 경남 함안군 군북면 중암리 29-1 TEL. 055-585-6788 FAX. 055-585-6787 | www.hamanjo.net, www.hamanjo.co.kr

## 대종회 사무실에 선조 文集 비치



수집된 문집 및 기증받은 도서들

문집을 내는 일은 무척 어려웠고, 갑오경장 이전은 더 어려웠다. 합조 출신으로 갑오경장 이전에 살았던 분으로 문집을 낸 어른들이 많이 있었고 그 이후에도 있었으나, 직계 후손이나 제자가 아니면 관심을 가지고 챙기는 경우가 별로 없었던 게 현실이었다. 문집 간행의 질과 양은 그 문중의 문필과 위상을 말하는 것으로 말로만 시족

이니 양반이니 말하는 것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작업의 필요성을 통감하고 수년 동안 빌품과 경비를 소요하며 작업에 뛰어든 분이 한문과 일본어에도 조예가 깊은 담재(淡齋) 조상래(趙相來, 參議公派) 본회 고문이다. 문중에 산재되어 있는 문집을 체계적으로 수집 정리하기 위해 연로함에도 불구하고 사방팔방으로 뛰는 조

옹(趙翁)의 열정에 감명을 받아 협조를 아끼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었지만, 조문규(韜巖公派, 칭원) 조옥래(參議公派, 김해) 조명래(方壺公派, 대구)씨 등의 도움이 커졌다. <月臘集(월고집)> <一山集(일산집)> <西川集(서천집)> 등 52명 분의 문집 영인본과 복사본 87책(冊)을 대종회 사무실에 비치 해 관심이 있는 분은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게 되었다. 합조 출신으로 문집을 간행하고도 목록에서 빠진 분에 대한 발굴과 연구는 계속되고 있다. 이와같은 소식을 듣고 대구에 거주하는 조종호(趙宗浩 東溪公派 종회장, 濟) 대종회 고문이 선뜻 사무실 집기 구입비로 200만원을 지난 6월 7일 경북 청송에서 있은 내현공파(耐軒公派) 총회때 협찬키로 했다.

## 채미정(采薇亭) 복달음과 은행나무



음식을 먼저 드신 분들이 더위를 식히기 위해 마당에 많이 나와 있다.

오랜 전통으로 중복 날 채미정에서 하던 복달음 행사를 올해도 중복 날 하려고 했으나, 장마가 계속되자 말복 날로 연기하여 읍력 8월 13일(음력 6월 23일) 일가들 100여명이 모여 서로 안부를 물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가을 추수 후 종종전답에

대한 세(稅) 거두기와 시제 때 많은 일을 해야 하는 집안 유사들의 여름에 허해진 체력을 보강해주고 격려하기 위한 미풍으로 생긴 채미정 복달음이 약간 다른 방향으로 변해가고 있는 느낌을 받았다. 이날만큼은 본래의 취지를 살려 늘 그늘에서 일하는 10여명 되는 유사들의 자

리를 별도로 마련하고 먼저 일가들에게 소개하거나 맡은 분야의 일과 현황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채미정에 모인 일가들을 가슴 아프게 하는 일이 있었는데, 오백 년 넘은 은행나무를 누군가 고의적으로 해치기 위해 뿌리 부분에 드릴로 구멍을 내고 농약을 투입해 은행나무를 고사시킨 일이 발생되어 많은 종원들로 하여금 탄식을 자아내게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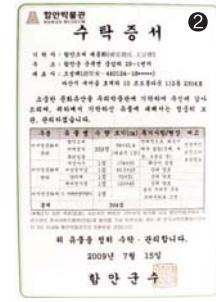
지난 정기 총회 때 ‘채미정 정비 件’이 통과 되어 곧 공사에 들어갔는데, 그동안 남쪽 소문은 보수 작업을 했고 정자의 전망을 가리던 낡은 대문채는 허여 내었으며, 함안군에서 하천변 석축공사와 대문 앞으로 흐르는 농수로 복개로 공간을 넓히자 채미정이 말끔하게 단장이 되었다.

채미정 주변에 심은 정원수는 본회 조군제(趙君濟) 감사와 마산 거주 조호래(趙浩來) 종원의 헌수목이고 공사를 마칠 때 채미정 안내판을 그 이전 출입문 옆에 세웠으며 석정(石亭)에도 안내판을 세웠다.

# 咸安宗會報

## 원북재 조묘전(祧廟殿) 책판

### 함안박물관에 기탁



- ① 우측에서 세 번째가 조성래 대종회장 네 번째는 한국국학진흥원 권진호 책임연구원과 그 옆이 박순 박사  
② 7월 15일 자로 수탁증서를 받았으며 문서화와 같은 준비과정을 거쳐 이동은 7월 22일에 했다.

문중의 귀중한 유물인 책판이 부식이 심하고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종사운영위원회에서 고심을 해 오다 2009년 제34회 정기총회에 상정하여, 함안박물관에 기탁하기로 결의한 바 있었다.

조묘전에 보관 중이던 책판 355점(琴隱先生實記(29장), 漁溪集 I(30장), 漁溪集 II(28장), 損岩集(154장), 反觀集(46장) 등)과 <養義齋, 西山祠宇, 西山之感> 현판, 대종회 사무실에 보관 중이던 관아재(觀我齋) 조영석(趙榮祿)이 쓴 <채미정 기문>

1점, <함안조씨십종록> 책판 2점, <함안조씨세보> 책판 1점, 어계 선조 지팡이 등을 지난 7월 22일 함안박물관에 기탁했다.

이직 함안박물관이 보존처리를 하는 시설이 미비하여 책판과 서산사우 현판은 한

국국학진흥원으로 이동한 후 가스와 약품 처리 후 함안박물관으로 다시 이동 할 예정이다. 약품처리와 책판에 대한 내용과 가치 등을 정리한 후 함안박물관에 오는데 걸리는 기간은 3~5년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날 책판은 5장씩 포장한 후 탑 차로 이동 했으며, 함안박물관에서는 최희범(崔熙範) 학예연구사, 한국국학진흥원에서는 권진호(權鎮浩) 책임연구원이 나왔고, 입회인으로는 조성래 대종회 회장, 조용득 종회보 편집국장, 전정열 함안문화유산 해설사 등 다수가 참여했다.

참고로 유물의 기증(寄贈)은 소유권까지 주는 것이지만, 기탁(寄託)은 소유권은 문중에 남아 있고 관리나 처리만을 부탁하는 것이다.

## 서산서당(西山書堂) 입구에 표지석 수립



우측 맨 앞 조성래 회장, 바로 뒤 조용섭 사무총장

회의에 불이자 참석자 대부분이 찬성을 해 6월 2일 대종회 회장과 사무총장, 또 유사 조봉제(趙峯齋), 조정제(趙正濟)등이 참석 한 가운데 표지석을 세웠다.

지난 읍력 3월 중정 때 서산서당에서 미천제를 봉행한 후 음복시간에, 서산서당은 우리 문중뿐만 아니라 함안 3.1 독립운동 때 태극기 제작과 운동을 모의한 유서 깊은 곳인데 길가에 장소를 알리는 표지석 조차 없다는 지적과 함께 표지석 건립에 대한 긴급제의가 있었다.

입석터는 조근제(趙根濟, 參議公派) 종원이 제공하고 조성래 대종회 회장, 조성도 고문, 조용섭 사무총장, 수석부회장이 좋은 돌을 선정하기 위해 산청군까지 직접 가서 확인한 후 운반해 왔으며, 돌(150만원)의 기증자는 조성래 대종회 회장이고, 글씨는 대종회 조성도 고문이 썼다.

### ◆ 임원이사회비 및 협찬금 ◆

▶ 농협 177441-51-001861

예금주 : 함안조씨대종회

### ◆ 종회보 협찬금 ◆

▶ 농협 805047-51-069486

예금주 : 함안조씨대종회 조성래

#### 【자료협조】

대종회사무실에 보관중인 각종 문헌이 빈약합니다. 필요로 해 찾아오는 분과 또, 종회보 발간, 홈페이지에 올릴 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함안조씨와 관련된 종보·문집·논문·비문 등의 자료가 있으신 종원께서는 홈페이지에 올려주시거나 대종회 사무실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간 보내주신 분의 명단은 4면의 수정도서목록과 같습니다.

## 재실순례

## 집의공파 괴산재(槐山齋)를 통해 본 일가들의 교류



함안의 동헌 건물을 수평 이동한 괴산재

함안의 동헌 건물을 수평 이동한 괴산재는 함안군청에서 함안면으로 올라가면 가야면과 경계지점인 무진정이 나오고 무진정을 돌면 바로 고향 부락이 나오는데, 동네 입구에 성산산성을 알리는 안내판이 나온다.

성산 산성 가는 길을 따라 500m 정도 올라가다 좌측으로 꺾어 오솔길을 따라 들어가면 왜가리들의 집단 서식처인 울창한 대숲 속에 거

의 방치 상태로 있는 집의공파 재각인 괴산재가 있다.

이 괴산재(槐山齋)는 한국 동란으로 조선시대 건축물이 대부분 전소될 때 화를 피하고 남아 있는 함안군에서 가장 오래 된 전면 5칸 측면 2칸으로 짜임새가 매우 아름답고 고출한 훌쳐마 단층 맞배 목조 건물이다. 이 건물은 구한말 지금의 함안면 합성 중학교 안에 있던 함안군의

동헌인 금학현(琴鶴軒)의 목

재가 팔리자 집의공파에서 매입한 후 1899년 수평 이동한 것이다. 비슷한 사례로는 전주 류(柳)씨 가에서 전주 감영의 목재를 매입하여 재각(齋閣)을 지은 경우와 전라북도 무주 동헌 목재를 개인이 매입하여 집을 지어 사용하고 있다가 사찰에 판 사례가 있다.

괴산재로 옮기기 전 목재는 오횡목의 [경상남도함안 군총쇄록]을 참고로 하면 류기상(柳基常) 군수 때 지은 목재로 추정되며, 류기상 군수는 순조(純組) 신미(1811년)에 부임하여 甲戌(1814년)에 파직된 사람이니, 동헌 건립시기를 빠르게 잡으면 1813년 정도 일 것이고, 아무리 늦게 잡아도 1814년(파직 되던 해)을 넘어 가지는 않을 것이다.

무진정 조삼(趙參) 선생의 직계 후손으로 당시 괴산재에 드나들던 일산(一山) 조병

규(趙昺奎), 진사(進士) 조기영(趙基永), 서고(西臯) 조광규(趙光奎), 금계(錦溪) 조석제(趙錫濟) 등 이름난 선비들이 있었으나 괴산재 건물을 낙성한 후 중수기(重修記)는 자리신에 거주하고 있던 참의공파(參議公派) 월고(月臘) 조성가(趙性家)가 지었는데, 월고가 괴산재의 중수기를 쓰게 된 동기는 일산(一山) 조병규(趙昺奎, 1846~1931)와 광천(廣川) 조성윤(趙性胤)과의 인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일제에 의해 국권을 박탈당하자 신식 학문에 영향을 받은 선각자들이 교육을 일으켜 나라를 되찾겠다며 1908년 교남교육회(嶺南教育會)를 설립했으나, 보수적인 영남에서 신학문에 대해 호응을 별로 하지 않을 때 앞장서서 호응하며 회원에 가입한 신산(信山) 조성부(趙性孚, 1867~1918)가 교육활

동을 펼친 거점이 괴산재이며, 이런 배경으로 전국의 명사요 거물 정객들이었던 안재홍(안조선일보 사장) 흥명희(임꺽정의 저자) 여운형(독립 운동가) 등과 막역하게 교류하며 함안군의 신간회 활동 및 하증민과 백정의 인권해방운동인 형평사운동(衡平社運動)을 주도 했고, 1920~30년대 동아·조선일보 주재 기자 및 지국장을 하며 애국계몽 활동을 헌신적으로 하다 38세에 율분으로 요절한 두암공파(斗巖公派) 퇴우(退憂) 조진규(趙珍奎, 1904~1941)와 같은 분이 괴산재에서 탄생 할 수 있었다.

마을 앞 조진규(趙珍奎)의 비문은 집의공파로 조성부(趙性孚)의 아들 조전규(趙典奎)가 기록한 전(傳)을 바탕으로 하여 전(前) 성균관대 교수 이가원(李家源)이 썼다.

진정과 열정의  
조진래 국회의원

국회의원에 당선 된 후 받은 첫 세비 중 불우 이웃돕기로 의령, 함안, 합천에 각각 245만원을 기탁하여 화제가 되기도 했던,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소속 조진래(趙辰來, 大笑軒公派)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어리석은 사람이 산을 옮긴다는 뜻의 '우공이산(愚公移山)'을 좌우명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고 있다. 조의원은 우리 국민이 산이고 정치지도자들이 우공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에게 정치지도자들이 다가간다면 충분히 국민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고 제3차 오일쇼크, 고유기문제, 원자재 가격급상승 등의 종체적인 난국을 충분히 돌파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조의원이 생각하는 국회의원에 대해 "발과 언행이 일치하는 사람, 전문지식으로서 봉사하는 정치인. 조선의원인 만큼 매사에 조심하고 절제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앞을 내다 볼 수는 없지만 성급한 마음을 버리고 욕심내지 않는 진실 된 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는 조진래 의원의 다짐과 각오는 꼭 이루어질 것이라 믿는다.

[www.jinlae.com](http://www.jinlae.com)에서

행정구역 문제로  
고심하는  
조영규 함안군수

조영규(趙英奎, 大笑軒公派) 함안군수가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행정구역 통합과 관련해 통합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8월 27일 함안면사무실에서 함안면의 곳감자목반을 위한 외래강사 초청 강연 중 잠시 시간을 빌려 재확인했다. 조 군수는 이날 "최근 일부 인사가 가두방송을 하면서 마치 군수와 함안군이 통합에 반대하고 있는 것처럼 왜곡 호도하고 있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면서 "군은 분명 통합에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통합에는 순기능, 역기능이 있는 만큼 9월에 있을 특별법 제정 이후 어떤 인센티브가 있는지, 통합이 되더라도 함안의 정체성이 유지되면서 함안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고 통합 여부는 충분히 주민의 의사를 수렴한 후 심사숙고해서 가부를 결정하겠다"라며 선동에 현혹되지 말 것을 거듭 강조했다.

주)세양 조필제 회장  
장학금 3억원 기탁

좌측에서 네번째가 조필제((주)세양) 회장

조필제 회장(趙弼濟, 節度公派)이 고향 함안의 후학양성을 위해 (재) 함안장학재단에 3억 원의 거금을 쾌척했다. 조 회장은 "고향의 어려운 후학들이 학업에 보다 충실히 후일 고향 발전에 이바지하는 동량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기탁 배경을 밝혔다.

조 회장은 1925년 함안군 신인면 운곡리에서 태어나 경기중학교(5년제)를 졸업하고 일본 기리후고등공업학교(현 군마대학)에서 수학 중 대동아전쟁이 격렬해져서 귀국했으며 해방 후 1946년 서울대학교 기계공학과에 입학하였으나 당시 조선항공과가 새로 신설되자 조선분야 기술자가 꼭 필요하리라는 생각에 조선항공과로 전과했다.

제일모직 상무, 한국생산성본부 경북지부장, 전주제지(현 한솔제지) 전무, 동서식품 부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강사로 출강하기도 했다. 함안조씨 화수회 총연합회장직을 8년 동안 맡아 대소사를 치렀으며 함안에 있는 많은 선대 유적을 자비로 수축, 복원하여 종족의 친목을 도모하고 있다.

한국엔지니어클럽과 서울 국제짜

이언스클럽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1963년 국무총리 표창, 1966년 최우수 최고경영자상을 수상했다. 가족으로는 부인 이경희 여사와 슬하에 1남 8녀를 두었다.

농계처사(農溪處士)  
수비(豎碑)

대소현(大笑軒) 조종도(趙鍾道) 선생의 후예인 농계(農溪) 처사 조용상(趙鏞相)은 부 조공규(趙恭奎) 공과 모 재령이씨 사이에 1911년 읍력 4월 27일 함안군 군북면 하림리에서 태어났고, 일제강점기에 젊은 나이로 일본으로 건너가 생소한 환경 속에 체질화 된 근면과 겸소로 국적과 인종의 편견을 넘어 주위의 신뢰와 신망을 두텁게 받았다. 광복이 되자 주위에서 귀국을 만류했으나, 고국으로 돌아와 노모를 모시며 위선사업과 자신이 혼란기에 이루지 못한 학업에 대한 열정을 자녀들에게 쏟았다. 노년에 이르러 이웃의 친지들과 산수의 경개를 소요하며 유유자적한 삶을 살다 76세로 영면했다. 중소기업은행 영남본부장을 지냈고 문중 일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대종회 감사 조군제(趙君濟)는 농계 처사의 6남 1녀 중 장남이며 묘소가 있는 군북면 하림에 비(碑)를 세우는 날 일가 및 친구 등 축하객 200여 명이 모였다.

## 함조(咸趙) 출신 언론인



조용수(趙鏞壽, 1930~1961) 민족일보 사장은 간송당(潤松堂) 공파 종손인 아버지 조찬규(趙贊奎)와 어머니 진주 하규남(河珪南) 사이에 차남으로 외가 집인 경남 진양군 대곡면 단목에서 태어났다. 간송당 조임도(趙任道, 1585~1664) 선생은 조선조 인조(仁祖) 때 영남의 산림처사로 명성이 높아 대군사전(大君師傳), 효종 때 공조좌랑(工曹佐郎)에 특별되었으나, 모두 나아가지 않고 학문에 힘써 거유로 명성이 높았던 어른이다. 경남 도의원을 지낸 조찬규 공의 동생이 자유당 때 국회부의장을 지낸 조경규 공이니, 민족일보 사장 조용수에게 조경규 공은 숙부가 된다. 간송당 선생이 만년에 진주 남강과 낙동강이 합치며 절경을 이루는 용화산 기슭에 합강정(合江精舍)를 짓고 기거해 후손들이 이 근처와 창녕에 많이 살며 영남의 명문가로 인정받아 왔다. 조용수의 어머니는 진주의 만석군인 하종식씨의 딸이며, 외숙부는 제2대 국회의원으로 부와역적 처단인 반민특위에 활동한 진주의 명사였던 하민복씨이다. 숙부와 외숙부가 모두 우익진영의 국회의원을 지내 자연스럽게 어려서부터 조용수도 정치에 관심을 가졌고, 짧은 생애였지만 사상경향을 살펴보면 중도 우파를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소년 조용수는 진주 봉래국민학교와 진주중학교를 다니면서 수석을 한 번도 놓치지 않을 정도로 명석했다고 한다. 진주중학(5년제) 재학 때 학교 내 좌우익의 갈등이 심했는데, 조용수는 우익 쪽 학연간부로 활동 하다 좌익 쪽 선배에게 심하게 구타를 당한 후 대구 대륜중학교로 전학하여 졸업하고 연희전문(연세대 전신) 정경학부에 입학한다.

대학에 입학하던 해에 한국전쟁이 발발하여 경찰국 경사로 외숙부 하만복 씨의 경호비서를 하다, 진

주중학교 선배의 도움으로 일본 유학을 결심하고 일본으로 건너가 메이지대학 경제학과 2학년에 편입한다.

일본에서 재일교포의 우익 단체인 민단이 발행하는 민주신문과 국제타임스에서 기자로 활동 했고, 이 시기 대통령 후보였던 진보당 조봉암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사형선고를 받자 조봉암의 구명을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 22만 명의 서명을 받아 이승만에게 보내기도 했으나, 조봉암을 구하지 못 하자 한때 실의에 빠지기도 했다. 이승만을 지지하는 우익인 민단에 봄담고 있던 조용수는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조봉암 추도회를 열어 불이익을 당하고 조직에서 좌천되기도 했다. 1960년 3월 15일 이승만 정권이 온갖 부정선거를 감행하여 대통령에 4선 되었으나 4·19 학생 혁명으로 사임하자, 일본에서 이 소식을 들은 조용수는 조국을 위해 무엇인가 해야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급히 귀국한 후, 이 해 7월에 있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일가들이 많이 사는 경북 청송에서 출마했으나 좌익이란 유언비어로 낙선한다.

1961년 1월 혁신계의 지지를 받아 주식회사 민족일보를 창간하고 신문사의 강령을 발표하는데 민족일보의 색깔을 가장 잘 보여 주는 대목이다.

1. 우리는 민족자주적이며 평화적 통일을 기한다.
2. 우리는 민족자주역량의 총집결을 기한다.
3. 우리는 민족자주의 처지에서 국제우호의 독립을 기한다.

자유당 시절에는 무력에 의한 북진통일이 아니고 “자주”나 “평화통일”的 용어만 거론해도 좌익으로 몰리거나 국사범이 되는 처지였으며, 4월 학생 혁명 후 분위기가 완화되었다고 하나 큰 변화는 없었다. 민족일보 창간 당시 한미경제 협정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연희 전문학교와 일본 메이지대학에서 경제학을 공부하면서 국제 간각

과 미국경제의 생리를 읽고 있던 조용수 민족일보 사장은 일본가의 국교정상화에는 찬성을 하고 한미 경제협정은 한국경제가 미국에 종속될 것을 염려하여 반대 논리를 펼쳐 장면 내각과는 사사건건 갈등을 빚는 관계가 되고 급기야 신문을 찍지 못하는 상황에 부딪친다. 서울신문 윤전기를 이용하던 민족일보가 장면 정부의 방해로 서울신문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인쇄에 대한 계약 파기를 통보 받고 3일간 정간을 한 후 신입경제신문사로 장소를 옮기는 상황도 있었다. 당시 각 신문사의 발행 부수를 보면 서울신문이 2만 4천, 동아 경향 등 인기 있던 신문들이 4만 5천 정도였으나, 민족일보는 처음부터 4만 부를 발행했고 한 두 달 만에 4만 5천부를 발행하는 기염을 토하며 기관에서는 가장 많이 판매되는 기록을 세우자 기존 신문사들도 민족일보를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은 것 같다. 민족일보가 겪는 수난에 대해 대부분의 국내신문사는 관심이 인색하거나 회피하는 태도를 보인다.

극소수만이 미국 유학을 꿈꿀 때, 이미 캘리포니아 주립대 경제학과 교수로 있던 조용수의 사촌형 조용삼 교수는 어려서부터 총명한 조용수를 누구보다 아꼈다는, 권력을 잡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정치인들에 의해 사촌 동생이 일찍 꺾일까 염려하여 유학을 권유하자, 조용수 사장도 심각하게 고민하고 유학 쪽으로 생각을 굳혔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는 사이 5·16으로 군사정권이 들어섬과 동시에 조용수 민족일보 사장은 1호로 구속되고, 언론 길들이기 표적의 희생물이 된다. 정통성 문제에 큰 핸디 캡(handicap)을 가지고 있던 군사정권은 독립유공자들의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던 민족일보는 눈에 가시와 같은 존재가 아닐 수 없었다. 5월 18일 연행되어 일시천리로 재판은 진행되었고 변론도 없이 사형이 선고되자, 국내보다 국제적으로 주목을 받는 사건이 된다.

일본의 작가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구명운동에 앞장섰다. 동경대 총장 출신 작가 남비라 시게루(일본의 군국주의를 반대했고, 종전 후 동경대 총장 역임), 노벨 문학상

수상자 가와바다 야스나리, 훗날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는 오에 겐자부조(당시 36세) 등 양심적 지식인들이 국적을 떠나 구명운동에 동참했고, IPI(국제신문인협회) 본부에서 두 차례 항의문 발표, 국제 펜클럽본부에서 항의문 발표, 여러 나라의 작가협회가 항의문을 발표하며 관심을 가지고 구명운동에 적극적 이였으나, 1961년 12월 20일 군사정권은 전격적으로 극형을 집행한다. 지구촌의 지식인 사회를 소용돌이치게 했던 조용수 사장의 이때 나이는 32 살에 불과했다.

맹자(孟子)에 “...刺人而殺之曰非我也兵也”란 말이 있다. “사람을 창으로 찔러 죽여 놓고 말하기를, 내가 한 일이 아니라 친(兵)이 죽었다”고 변명할 때 하는 말이다. 군사정권은 사법부에서 적법하게 죽였다고 스스로 위안으로 삼았고, 사법부는 분위기에 떠밀려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회피 했다. 헌법 제1조 “만공을 국시로 한다”는 군사정권은 사재를 털어 만든 민족일보 재산을 유족에게 돌려달라는 유족들의 수차례 걸친 탄원을 외면하는 자가당착에 빠지는 오류를 범한다. “사법부에 의한 살인 사건”으로 통하는 이 사건에 대해 수십 년 동안 함부로 거론조차 할 수 없어 유족과 가까운 집안은 가슴앓이를 해야 했다.

조용수 민족일보 사건 후 군사정권이 의사 출신으로 자유당 때 국회의원을 역임하고 참신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던 조용수 사장의 숙부 조경규 공에게 공화당 창당 멤버가 되어 주면 국회 쪽을 부탁하겠다며 제의했으나, 조경규 공은 조카 조용수로 입은 상처로 군사정권의 제의를 한 마디에 거절했다고 한다. 조용수 사장이 극형 선고를 받을 때 조용수 배후의 인물로 지목되었던 사람은 군사정권에 협조하여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여했고, 민족일보 사 직원으로 사형을 선고 받았던 이들도 그 후 사회 저명인사로 활동하게 된다.

역사가 조용수 사장의 무죄를 증명하는 데는 50년도 걸리지 않았다. 2008년 1월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김용석 부장판사)는 민족일보 조용수 사건 재심 선고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했다.

〈편집부 조평래〉

## 재정비에 나선 화수회

함안 본향 화수회 중 면별 화수회 활동이 매우 활성화 되어 일 가나 타성들로부터 부러움을 사는 곳이 있는가 하면 침체되어 수년 동안 공전을 면치 못하는 곳이 있었는데, 그 중 침체된 대표적인 경우가 가야읍과 함·여화수회였다. 가야읍의 경우 외부에서 볼 때 회원 수나 경제적 여건이 제일 좋다는 조건이 오히려 송조목종 정신을 희박하게 하지

않나 하는 오해를 받기도 했다. 재정비에 의욕을 가지고 소장 총으로 이루어진 운영위원회가 몇 차례 모임을 가진 후 정기총회 겸 화수회 단합대회를 9월 6일 10시에 함안문화원에서 개최했다. 함·여는 남자들이 소극적이자 딸내 계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앞으로의 활동이 주목 된다.

## 2009(己丑)년 墓享 안내

### ● 版圖判書公 謂 天啓

- 일 시 : 11월 17일 화요일 10시(음력 10월 1일)
- 장 소 : 함천군 묘산면 반포리 185-3번지
- 연락처 : 趙鳳來(총무) 010-4479-3361, 趙鍾朱(종원) 010-8834-6213

### ● 三先 所

- 典書公 謂 悅 11월 27일(음력 10월 11일) 상오
- 寺正公 謂 安 11월 27일(음력 10월 11일) 하오
- 貞節公 謂 旅 11월 28일(음력 10월 12일) 상오
- 장소 : 함안군 군북면 원북리 · 하림리/법수면 강주리